

내용 요약

고대의 예술적 전통을 가진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평평하고 비옥한 땅에 수메르인들의 최초의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된 이후 메소포타미아 미술의 오랜역사는 연속성만큼이나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 책에서는 저명한 작가, 여러 미술 사학자 및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자들의 글과 도판자료를 통해 생생한 예술적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예술과 건축을 중심으로 본문에 수록된 217 개의 컬러사진과 247개의 흑백사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고고학적 유적지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처음 두 장에서는 기원전 6500~3800년경 수메르 우바이드(Ubaid) 시대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의 유적과 유물인 우르의 왕실 묘지의 화려한 보물, 우루크와 바빌론의 거대한 지구라트 등과 알렉산더 제국에 포함된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고전 시대를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장은 셀레우코스 (Serleucus)가 세운 헬레니즘 왕조의 그레코・메소포타미아 예술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기원전 1 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두 페르시아 왕조 인 파르티아와 사산왕조의 예술적 공헌을 조사하고 전형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인 둥근 천장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홀 또는 공간인 이완(Iwan)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아바스칼리프(Abbasid caliphs, 8~13세기)의 초기 이슬람 예술을 다루고 있다.